

보도시점 2026. 8. 7.(금) 15:00 배포 2026. 8. 7.(금)

기후부 제2차관,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 현장 점검

- 영등포구 폭염 대응시설(물길쉼터)과 취약계층 가구 냉방 지원 현장 살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후, 이호현 제2차관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폭염 대응시설과 인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폭염 대응 지원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은 조유진 영등포구청장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문래근린공원 내 폭염 대응시설(물길쉼터) 운영 현황과 폭염 저감 효과를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영등포구 내 7개 공원에 물길쉼터, 쿨링포그 등 지원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극심해지는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야외 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쉼터* 128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24곳에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 야외 노동자 쉼터, 기후대응 쉼터, 우리동네 쉼터 등

이어 이호현 제2차관은 올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받은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냉방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날 현장에 함께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취약계층이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7월 말까지 1만 9천 가구와 500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으며, 냉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7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단열·창호 시공 등 지원

또한 에너지바우처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36만 7천 원을 지원한다.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등록완료,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 변동 여부를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폭염 쉼터 조성, 냉방 환경 개선, 에너지바우처 등의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폭염대응 지원현장 방문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이승준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경선희 (044-201-6969)
		담당자	사무관	양동춘 (044-201-6638)

□ 개요

- (목적) 하절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실적 점검, 현장 의견 청취
- (일시) 2026. 8. 7(금), 15:00 ~ 15:50
- (참석자)
 - (기후부) 제2차관, 기후적응과장
 - (지방정부) 영등포구청장
 - (유관기관) 에너지공단 부이사장, 에너지재단 이사장
- (방문장소) 서울 영등포구 폭염 대응시설 및 취약계층 가구
 - (폭염 대응시설) 문래근린공원 물길쉼터
 -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물길쉼터 설치 완료('24년)
 - (냉방지원 가구)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고효율에어컨(1등급 벽걸이) 설치 완료('26.5월)

□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15	(15')	▶ 사업별 지원 현황 보고	
15:15 ~ 15:35	(20')	▶ 폭염 대응시설(물길쉼터) 현장 점검	
15:35 ~ 15:50	(15')	▶ 지원가구 방문 및 의견 청취	